

제주 글로벌 환경브랜드 구축의 성과와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태 윤

I. 서 론

제주는 이미 대한민국의 보물섬을 넘어 세계인의 보물섬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람사르 습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2012년 9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제주 글로벌 환경브랜드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지사 취임사에서 천명한 환경자산의 가치를 글로벌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0년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세계환경수도 비전에 대한 논란이 매우 많았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선결 과제도 많고, 국제적인 인증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주가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였던 시기로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한다.

제주가 세계환경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와의 상충 문제는 없는 지,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 증진에 대한 기여, 자연환경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원 재활용, 친환경사회시스템, 환경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은 환경보전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주의 환경자산을 글로벌 브랜

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천명하고 환경과 경제의 통합, 주민참여의 활성화, 갈등의 사전 예방 등 3대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세계환경수도가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이미 준비하였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는 국제적인 공신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정한 평가·인증 기준과 시스템에 따라 전 세계의 환경도시 중 모범이 되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환경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증하는 국제기구와 인증을 하기 위한 지표 개발, 평가 및 인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난 2012 제주 WCC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의한 세계 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을 제주도, 환경부 IUCN이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제주의 노력으로 세계환경수도 조성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3년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비전을 선포하였다. 세계환경수도 비전은 지금까지 제주가 획득한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등 글로벌 환경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사회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민선 5기 3년 동안 추진하여 왔던 제주글로벌 환경브랜드 구축 등 환경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세계환경수도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민선 5기 3년의 주요 성과

1) 2012 WCC 성공 개최로 세계환경수도 발돋움 계기 마련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173개 국 10,6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역대 최대 발의안(186개)이 채택되는 등 총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WCC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과 제주도가 환경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IUCN 총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지 이름이 들어간 「제주 선언문」을 채택(IUCN 총재, 조직위원장, 환경부장관, 제주도지사 서명)함으로써 지구적 환경 이슈 해결책과 향후 국제사회의 환경정책 비전 제시,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형 5대의제(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주도 용암순 곳자왈의 보전·활용을 위한 지원, 제주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가 모두 채택되어 결의·권고됨으로써 '제주 글로벌 환경브랜드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제일의 생태명품코스 개발(51개소) 및 모바일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생태문화해설사(172명)도 양성하였다.¹⁾

더욱이 2013년 6월 14일 스위스 글랑에 있는 IUCN 본부에 2012 WCC에서 최초로 채택된 '제주선언문'을 기념물로 제작·설치함으로써 제주선언문 채택의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고, 2020년 제주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위한 세계인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으로 환경가치의 글로벌화 실현

2011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세계7대자연경관은 7가지 테마(섬, 화산, 폭포, 해변, 국립공원, 동굴, 숲)를 주별로 선정하였는데, 제주는 7가지 테마 모두를 충족하는 곳으로 세계7대자연경관을 대표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은 뉴세븐더스에서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후보 공모(440개소)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인터넷 투표로 1차 261개 지역, 2차 77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2009년 7월 21일부터 28개 후보지에 대한 전화·인터넷 투표를 통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제주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궈낸 값진 결과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2010년 777천 명, 2011년 1,045천 명(전년대비 34.6% 증가), 2012년 1,681천 명(전년대비 60.8% 증가)으로 급증하는 것도 결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제주 UNESCO 3관왕 브랜드 가치 제고

제주는 2002년 12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7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2010년 10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음으로써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이들 국제보호지역은 한 번 지정되면 영원히 인증되는 것이 아니며,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주

1) 2012 WCC에서 결의된 제주형 5대 의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별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이를 IUCN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기 MOU를 체결하게 된다.

도가 제출한 생물권보전지역(10년 단위 정기 보고서, 2012년 12월 채택), 세계자연 유산(6년 단위 정기보고서, 2013년 5월 채택) 정기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국제보호 지역 타이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²⁾.

미국 CNN의 조사·보도(2012년 1월)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50선에 성산일출봉이 제1선에 선정되었으며, 이외에도 섭지코지, 우도, 협재해수욕장, 한라산 등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한국 관광 기네스 12선(2012년 12월)에 성산일출봉과 제주올레가 선정되었다. 교과서³⁾에도 ‘유네스코 3관왕 제주’를 수록하고 있는 등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은 제주를 국내·외에 홍보·마케팅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를 개관(2012년 9월)하여 국내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도가 주도하여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를 설립(2012년 2월)하였고, 제주도가 스페인 메노르카와 함께 공동사무국으로 지정되어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제3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제주총회를 유치(2011년 7월)하여 오는 9월에 개최하게 된다. 또한 제주도 전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2012년 12월 27일)받았다.

4)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제주가 사랑하는 자연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등록유산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2012년 7월 18일)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세계자연유산센터의 설치·운영, 행위제한, 기념일(생물권보전지역의 날 12월 16일, 세계자연유산의 날 7월 2일, 세계지질공원의 날 10월 1일) 및 기념 주간(각 기념일 날이 속한 1주간)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존자원 및 자연환경관리조례 정비로 체계적인 보존 근거를 마련 보존자원 7종(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 지하수)을 지정·고시(2012년

2) 4년 단위 정기보고서를 평가하는 세계지질공원은 2014년에 재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유네스코 3관왕 제주’를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8개 출판사 13종의 교과서임

6월 1일)하고, 오름 및 제주올레 탐방을 위한 친환경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생태계의 보고 '동백동산 습지'를 랍사르협약 습지 목록에 등록(2011. 3. 4)함으로써 국내 17개 랍사르협약 등록 습지 중 가장 많은 4개의 습지(물장오리, 물영아리, 1100고지, 선홍동백동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백동산 습지는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 시범사업에도 선정('12.12)되었다. 특히, '선홍1리' 마을이 랍사르 사무국이 인증하는 제1호 '랍사르 시범마을'로 지정('13. 5)됨으로써 자연자산을 활용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주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곶자왈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178ha, 2012년까지 312ha(229억원)를 매입하였고, 2013년에 45ha를 매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2년에 곶자왈 도립공원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2011년 6월)하였다. 습지, 곶자왈 등 보전자원을 계량화, DB화하여 총량 관리함으로써 환경자원 보전 및 개발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전지역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코칭제 및 모니터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2011년 3월)하여 주민참여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후관리 미이행 사례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⁴⁾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라산연구소를 부활(2011년 1월 18일)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보호지역연구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을 위한 공립 나무병원을 2012년 1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한라산산악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2014년까지)하고 있다.

5) 산림치유, 생태관광자원 기반 구축으로 산림복지 만족도 제고

서귀포시 호근동 산1번지 일대, 174ha의 부지에 힐링센터, 명상숲길, 체험공간, 편의시설 등 50억 원을 투자하여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휴양형 '서귀포 치유의 숲'을 조성(2012~2014)하고 있다.

4)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사례는 2010년 40건, 2011년 24건, 2012년 15건으로 최근 3년 동안에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한라산 해발 600~800m 국유림 일대 80km 구간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한라산둘레 트레킹 코스를 조성, 한라산의 산림생태, 역사, 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4km 구간을 조성하였다.

6) 천혜의 제주자연에 부합한 환경복지 에코 섬(Eco-Island) 구축

아토피질환 치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100억 원을 투자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건축 연면적 3,000㎡)을 추진(사업기간: 2013~2014)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토피질환과 관련된 상담·교육시설, 치유실, 아토피연구소 등을 갖추게 된다.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을 위해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계획을 수립(2011년 11월)하여,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2020년까지 80% 감축) 및 에너지화 비율(현재의 50%를 2020년까지 100%)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의 유기성 에너지화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완벽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폐기물 수거 선진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진역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1,852→2,627대)할 예정이다.

악취 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악취자동감시시스템 및 악취 자동 포집기를 갖춘 축산악취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하였다.

III. 향후 과제

제주는 이미 세계인의 보물섬으로써 제주글로벌 환경브랜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또한 세계환경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첫째, 2020년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기 위해 2012 WCC에서 결의된 제주형 5대 의제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둘째,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사회체계 구축,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을 위한 범도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환경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2012 WCC ‘제주선언문’에 명시된 제주 세계환경리더스보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세계를 리

드하는 환경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제주 글로벌 환경브랜드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환경수도 제주' 조성 사업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세계환경수도 조성·지원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